

09호
2024.10

CEO Report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황인창·최원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 평가,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한 보험회사 CEO들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4명의 보험회사 CEO가 참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87%, 보험료 기준 85%를 차지함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 CEO들은 2025년 한국의 경기가 2024년에 비해 소폭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최근보다 낮은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CEO는 안정적인 CSM 확보를 통해 2025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작년보다는 낮지만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을 151~2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현재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 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고, 소비자신뢰와 혁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각각 보험상품 판매 관행, 영업경쟁 중심의 국내사업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보험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 마련이라고 응답하고,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세분화 등 시장을 통한 규율도 함께 강조함. 경영전략 측면에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 등 보험영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신사업 추진 등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향후 1~2년간 질병 등 인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간병 및 요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의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음. 마지막으로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내년 자산운용 전략으로 시장리스크를 축소하고 유동성자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응답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도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생·손보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금융 및 규제 환경 등 경영환경이 보험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함. 현재 보험시장에서의 치열한 영업경쟁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CEO들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보다 보험영업에 더 높은 경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경영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한정된 시장에서의 영업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사업모형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I

설문조사 개요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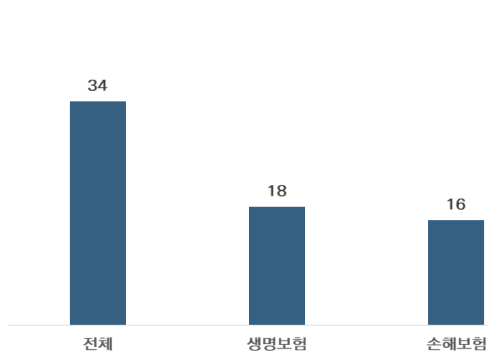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한 거시경제 및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이후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함과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캐나다, 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통화정책의 기초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현실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가계부채 부담 증가, 내수 부진 고착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와 같은 국내의 다양한 위험 요인도 존재하고 있음
- 또한 보험산업에 대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상품구조, 판매채널, 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과 아울러 새로운 회계제도 및 건전성 규제를 보험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도 검토 중에 있음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내년도 보험산업 전망 및 경영전략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함
 -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불투명했던 2020년 처음 시도되었으며, 2024년 5회째를 맞고 있음
 - 향후 보험산업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2. 설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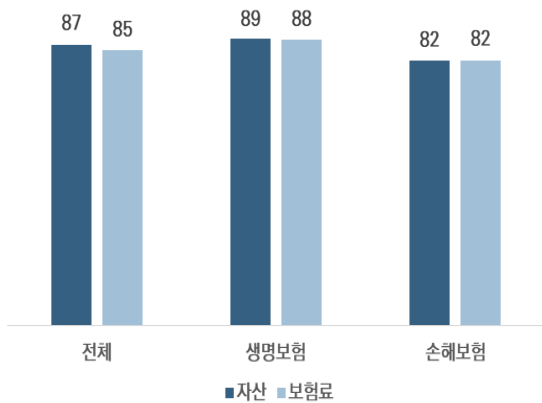
○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재보험회사 제외) CEO를 대상으로 2024년 8~9월까지 진행하였음

- 전체 44명의 보험회사 CEO 중 34명(생명보험 18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77%임
- 설문조사에 응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87%, 보험료 기준 85%를 차지함

〈그림 I-1〉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험회사 CEO 수
(단위: 명)



〈그림 I-2〉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3. 설문 내용

○ 설문 문항은 크게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 평가,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으로 구성함

- 보험회사 CEO의 내년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 및 금리에 대한 전망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질의함
- 올해와 내년 보험회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CEO의 예상 또는 기대에 대해 질의함
-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 수준을 평가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함
- 내년도 경영전략의 전반적인 우선순위와 함께 상품, 자산운용, 신사업 등의 측면에서 질의함

○ 본 설문은 단답형·척도형 문항이 대부분이며, 순위형 문항의 경우 순위별 가중치¹⁾를 부여하여 점수화한 후 단답형 문항처럼 분석함

1) 1순위는 3/6점, 2순위는 2/6점, 3순위는 1/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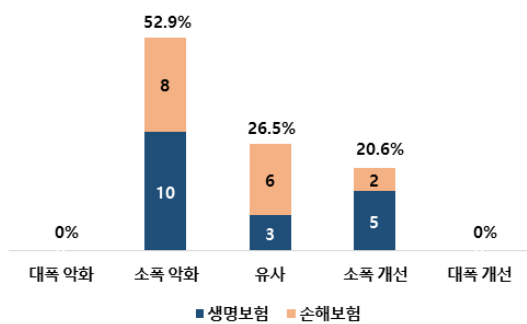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1. 경제환경 전망

- 보험회사 CEO들의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가 2025년 우리나라 경기가 2024년에 비해 소폭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2024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 비중은 각각 26.5%와 20.6%였음
- 경제 회복세를 지연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확대를 꼽음
 -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24.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역 분절화 심화는 13.3%, 중국 경제회복 지연은 10.3%를 차지함
 -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확대(22.2%)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8.9%), 고금리 지속(8.4%) 순임

〈그림 II-1〉 2025년 경기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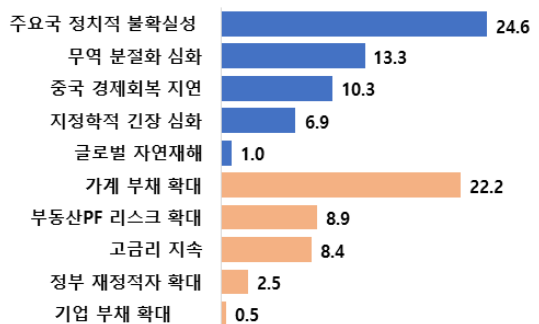
(단위: 명)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그림 II-2〉 2025년 경제성장의 주요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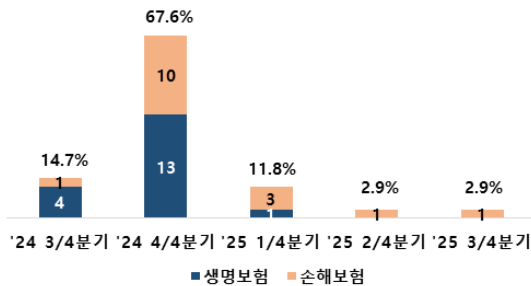
(단위: %)



- 대부분의 CEO는 우리나라의 통화긴축 완화 시작 시점을 2024년부터라고 예상하고, 내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최근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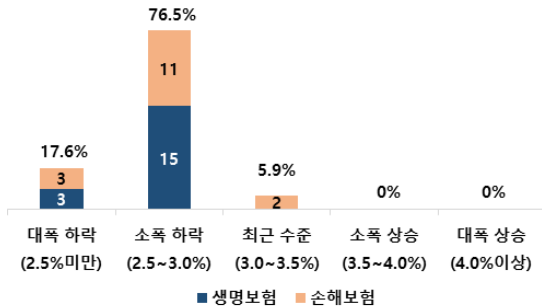
- 2024년 3/4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CEO 비중은 14.7%이고, 2024년 4/4분기부터라고 응답한 비중은 67.6%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가 소폭 하락(2.5~3.0%)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76.5%에 달하고, 대폭 하락(2.5% 미만)할 것이라는 응답도 17.6%를 차지함

〈그림 II-3〉 한국의 통화긴축 완화 시작 예상 시기
(단위: 명)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그림 II-4〉 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 전망
(단위: 명)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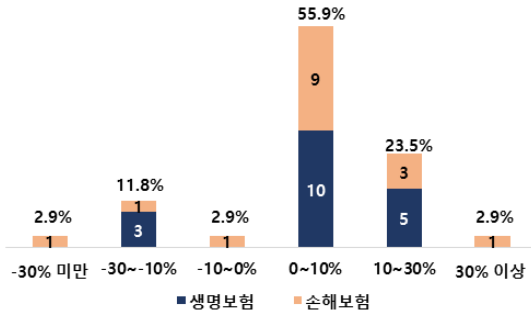
2. 경영지표 예상

- 회계제도 전환 이후 안정적인 보험계약마진(CSM)의 확보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수익성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24년과 2025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82.4%, 88.2%임
 - 2024년과 2025년 모두 자사의 CSM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인데, 2024년에는 0~5%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고 2025년은 5~10%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음

〈그림 II-5〉 보험회사 수익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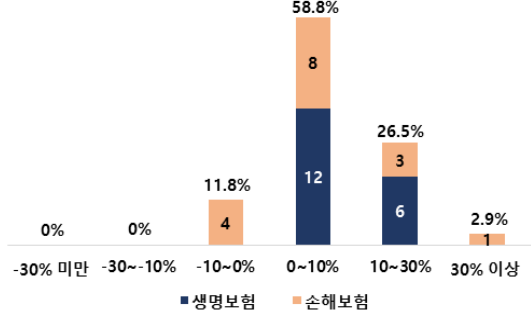
〈2024년 당기순이익 증가율 예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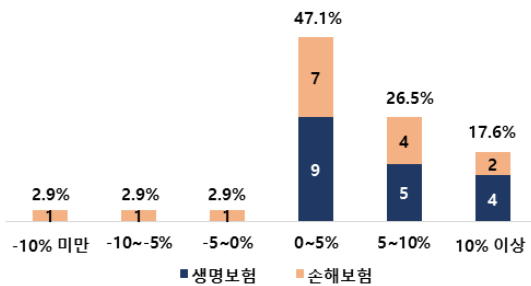
〈2025년 당기순이익 증가율 전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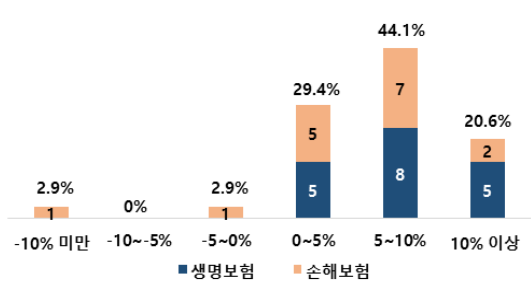
〈2024년 CSM 잔액 증가율 예상〉

(단위: 명)



〈2025년 CSM 잔액 증가율 전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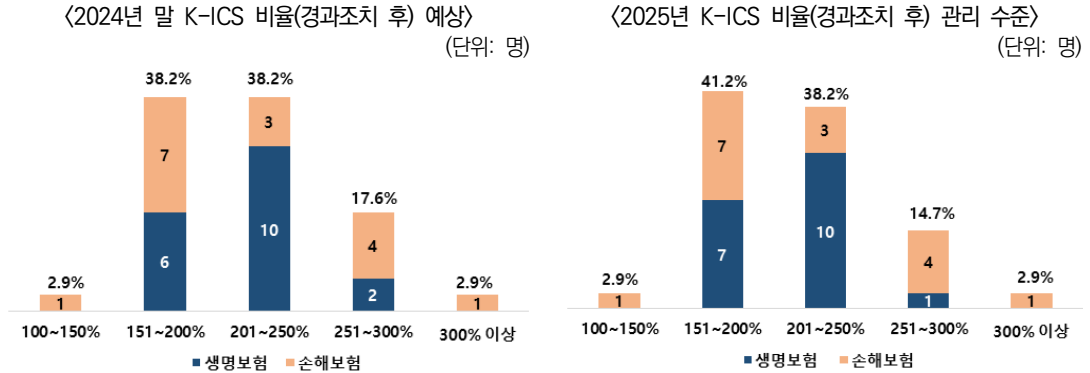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 2025년 79%의 보험회사는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을 151~2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인데, 작년 설문조사에 비해 K-ICS 비율 관리 수준이 낮아짐

- 작년과 올해의 설문조사를 비교해 볼 때, K-ICS 비율 관리 수준이 250% 초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34%에서 18%로 낮아짐
- 이는 K-ICS 도입 이후 경제적 자본과 규제 자본 간 격차가 줄어들어 더 이상 보험회사가 과도한 수준의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 예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6〉 보험회사 건전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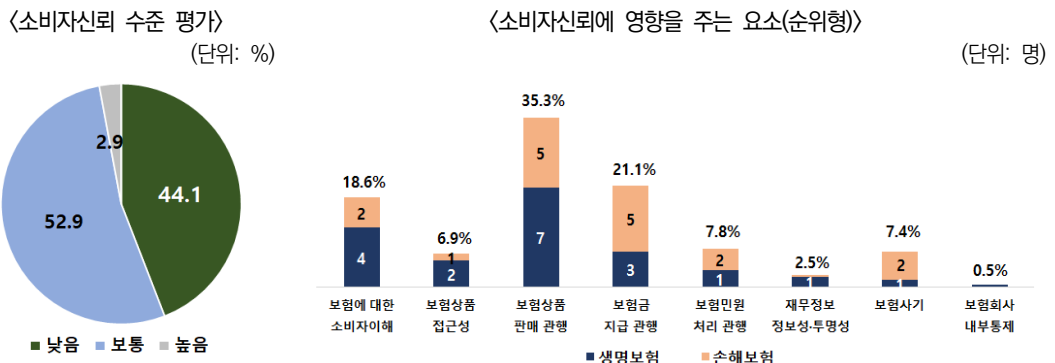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3. 보험산업 평가

- 보험회사 CEO들은 현재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수준이 대체로 낮다고 평가함
 -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52.9%)과 낮음이라는 응답(44.1%)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험상품의 판매 관행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 관행이라는 응답이 21.1%였음
 - 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18.6%), 보험민원 처리 관행(7.8%), 보험사기(7.4%)에 대한 우려도 있음

〈그림 II-7〉 보험산업 소비자신뢰 수준



주: 우측의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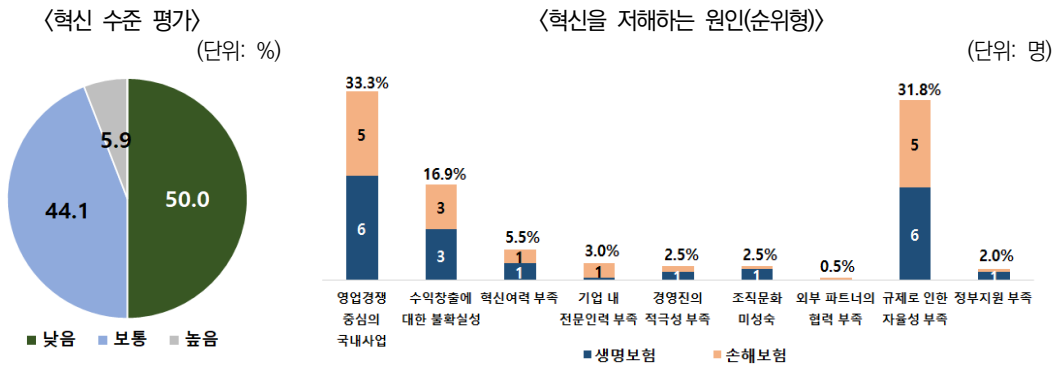
○ 보험회사 CEO들은 보험산업의 혁신 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낮다는 평가를 함

- 절반의 보험회사 CEO는 혁신 수준이 낮다고(50%) 평가하고, 그 외 대부분의 CEO는 보통(44.1%)이라고 평가함

○ 보험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주로 시장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영업 경쟁 중심의 국내 사업(33.3%)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규제로 인한 자율성 부족(31.8%), 수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16.9%) 순임
- 반면, 활용자원 관련 요인인 기업 내 전문인력 부족(3.0%), 조직문화 미성숙(2.5%), 외부 파트너의 협력 부족(0.5%) 등의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II-8〉 보험산업 혁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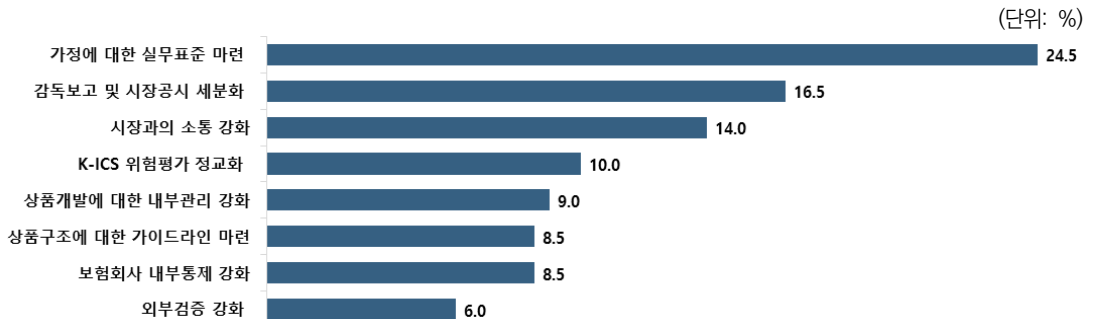


주: 우측의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 보험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 마련(24.5%)을 응답함

- 다음으로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세분화(16.5%), 시장과의 소통 강화(14.0%) 등 시장을 통한 규율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함

〈그림 II-9〉 보험산업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순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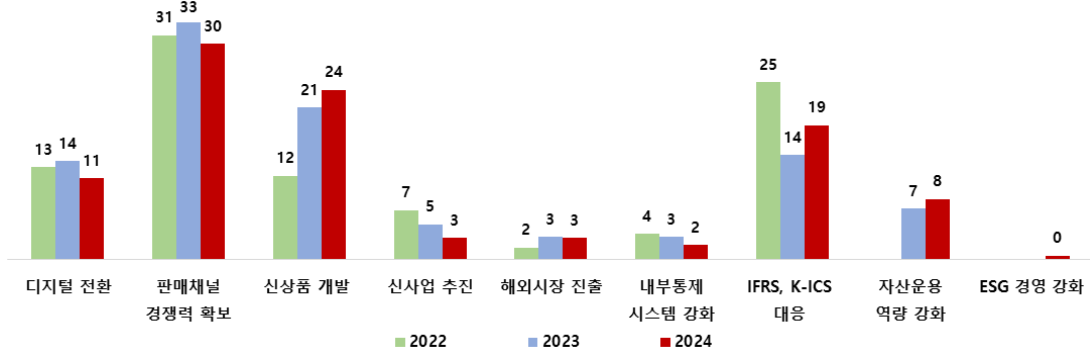


4. 경영전략 수립

- 경영전략 수립 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30%)와 신상품 개발(24%)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익 확보를 위한 치열한 영업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건전성 악화 우려로 IFRS, K-ICS 대응(19%)이 높은 응답을 보임
 - 반면,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인 신사업 추진(3%), 해외시장 진출(3%)에 응답한 CEO 비중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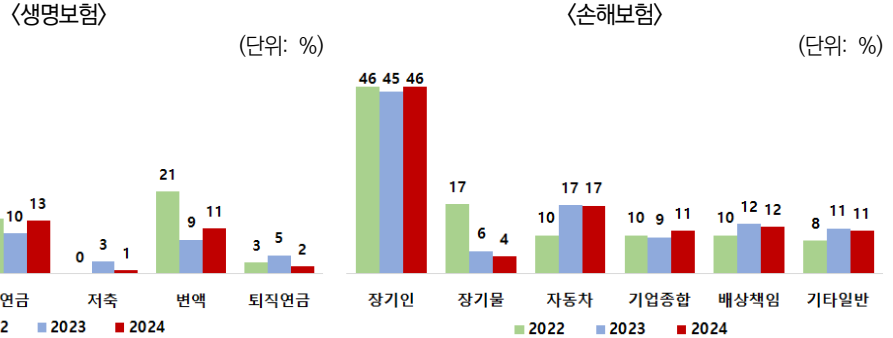
〈그림 II-10〉 경영전략 우선순위(순위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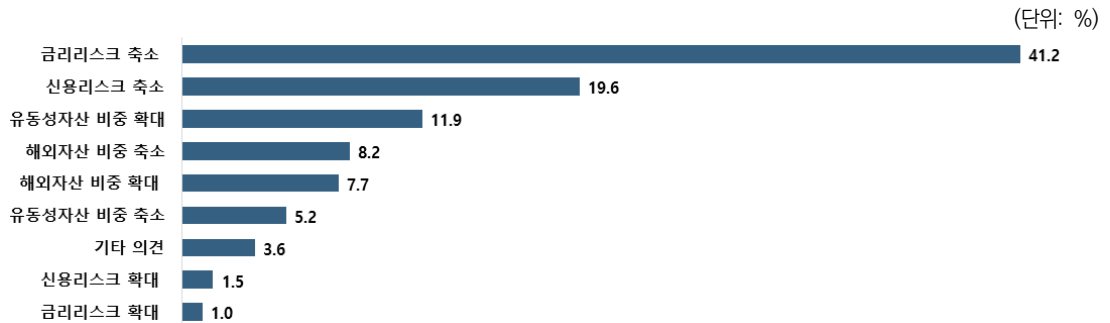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 CEO들은 향후 1~2년간 주로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응답함
 - 신계약 CSM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건강보험(40%)과 종신보험(32%)을 선택한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음
 - 한편,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 주식시장 상승 기대로 인한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 등으로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에 대한 응답이 전년에 비해 6%p 증가함
- 손해보험회사는 주력상품으로 과거와 같이 장기인보험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일반손해보험에 포함된 보험상품에 대한 응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장기인보험의 선택 비중은 46%로 가장 높고, 장기물보험의 선택 비중은 4%로 가장 낮음
 - 기업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응답 비중은 33%임

〈그림 II-11〉 향후 1~2년간 주력 상품전략(순위형)



- 보험회사 CEO들은 2025년 자산운용 전략으로 시장리스크를 축소하고 유동성자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금리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신용리스크 축소(19.6%), 유동성자산 비중 확대(11.9%)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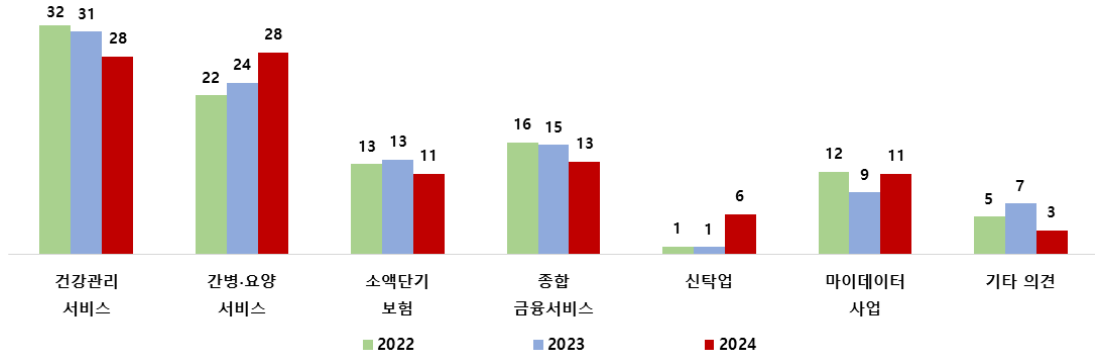
〈그림 II-12〉 2025년 자산운용 전략(순위형)



- 신사업 영역으로는 이전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건강관리서비스(28%), 간병 및 요양서비스(28%)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생·손보 모두 주력상품이 건강보험인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간병 및 요양서비스와 신탁업에 대한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함

〈그림 II-13〉 신사업 우선순위(순위형)

(단위: %)



III

요약 및 시사점

- 보험연구원은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보험산업 전망 및 경영전략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함
 -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보험회사 CEO 34명(생명보험 18명, 손해보험 16명)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 평가,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해 설문함
-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 CEO들은 2025년 한국의 경기가 2024년에 비해 소폭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최근보다 낮은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대부분의 CEO는 안정적인 CSM 확보를 통해 2025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작년보다는 낮지만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을 151~2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 현재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 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고, 소비자신뢰와 혁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각각 보험상품 판매 관행, 영업경쟁 중심의 국내사업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 보험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 마련이라고 응답하고,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세분화 등 시장을 통한 규율도 함께 강조함
 - 경영전략 측면에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 등 보험영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신사업 추진 등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향후 1~2년간 질병 등 인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간병 및 요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의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음
 -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내년 자산운용 전략으로 시장리스크를 축소하고 유동성자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도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생·손보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금융 및 규제 환경 등 경영환경이 보험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K-ICS 비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 관행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
-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장에서의 영업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사업모형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보험시장에서의 치열한 영업경쟁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CEO들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보다 보험영업에 더 높은 경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이러한 경영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보험영업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신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

5. 내년 말(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어떤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폭 하락 (2.5% 미만)	소폭 하락 (2.5% 이상 3.0% 미만)	최근 수준 (3.0% 이상 3.5% 미만)	소폭 상승 (3.5% 이상 4.0% 미만)	대폭 상승 (4.0% 이상)

나. 경영지표 예상

6. 올해(2024년) 귀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30% 미만	-30% 이상 -10% 미만	-10%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7. 내년(2025년) 귀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30% 미만	-30% 이상 -10% 미만	-10%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8. 올해(2024년) 귀사의 CSM 잔액 증가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0% 미만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9. 내년(2025년) 귀사의 CSM 잔액 증가율은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10% 미만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0. 올해말(2024년 말) 귀사의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어떤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15. 현재 보험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영업경쟁 중심의 국내사업 | ② 혁신여력 부족 |
| ③ 수익창출에 대한 불확실성 | ④ 경영진의 적극성 부족 |
| ⑤ 기업 내 전문인력 부족 | ⑥ 조직문화 미성숙 |
| ⑦ 외부 파트너의 협력 부족 | ⑧ 정부지원 부족 |
| ⑨ 규제에 의한 자율성 부족 | ⑩ 기타() |

16. 보험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상품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② 상품개발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
| ③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 마련 | ④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
| ⑤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세분화 | ⑥ 외부검증 강화 |
| ⑦ K-ICS 위험평가 정교화 | ⑧ 시장과의 소통 강화 |
| ⑨ 기타() | |

라. 경영전략 수립

17. 2025년 귀사가 자산운용 측면에서 중점을 둘 전략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신용리스크 축소 | ② 신용리스크 확대 |
| ③ 금리리스크 축소 | ④ 금리리스크 확대 |
| ⑤ 해외자산 비중 축소 | ⑥ 해외자산 비중 확대 |
| ⑦ 유동성자산 비중 축소 | ⑧ 유동성자산 비중 확대 |
| ⑨ 기타() | |

저자약력

황인창 KAIST 경영공학(재무) 박사 / 연구위원
E-mail : ichwang@kiri.or.kr

최 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CEO Report 2024-09호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발행일 2024년 10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52-1

